

군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행복한 부여 건설



이 용 우 | 부여군수

1961년 충남 부여 출생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수료

전(사)부여노인복지원 이사장

전 국립한밭대학교 겸임교수

전 대통령직속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0년 민선 5기 부여군수

2014년 민선 6기 부여군수

▲ 군수로 당선된 소감?

먼저, 저를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저를 믿어 주셨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제 새로운 민선 6기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겠다.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은 물론이고 반대하신 분들과도 당연히 함께 할 것이다.

선거기간 군민 여러분께 들었던 많은 말씀과 제가 군민 여러분께 드렸던 많은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으며,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여러분을 진정으로 섬기며, 군정의 주인이 군민 여러분임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로지 군민만 생각하며 언제나 군민 편에 서겠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역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어 군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현재 군의 주요현안과제를 꼽으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가 겪는 공통된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군 역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현안과제이다.

지난 1964년 19만을 상회하던 부여군 인구가 1997년 10만, 2002년 9만, 2007년 8만선이 붕괴되는 등 매년 1천명 이상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다행히 민선 5기부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년 1천명 이상씩 감소하던 인구가 20년만인 2012년 처음으로 1천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매년 그 감소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인구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할 수는 없다.

우선 제도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가정 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출산율 순 증가만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서는 우리군에 거주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인책을 개발하겠다.

아울러 귀농인 보육센터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겠으며 일자리와 관련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도권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권을 회복시키겠다. 부여군은 이미 지난 2013년을 지역경제 신활력 창출의 해로 선포하고 우량기업 유치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2018년까지 436억 원을 투입,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9개 장단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은산 2농공단지는 수도권 유망기업인 비츠로와 신화기공이 입주계약을 체결 공장을 신축중에 있고 잔여부지 또한 수도권 유망기업과 입주를 절충 중에 있다.

아울러, 백제문화단지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폭 흡수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 복합테마 놀이공원을 유치해 관광객을 원도심으로 유입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내포신도시 교통망 지원을 위해 부여~평택간 고속도로 조기 착수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역점 사업 및 공약

지금 부여는 인구감소세의 반전계기를 마련해야 하고, 침체되어 가는 지역상권을 회생시켜야 하며, 방치되고 있는 금강변 활용대책 마련과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분기점으로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

특집11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또한 세종시 중심의 신 중부권 시대가 새롭게 부상함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군 관련 대선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굿뜨래 2창업의 희망을 담보하고 보존으로서의 고도사업을 넘어 개방과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저는 금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 부자도시, 경제도시, 관광도시, 복지도시, 미래도시 등 6개 분야 63개 공약의 실현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재난 대응 매뉴얼 재정비와 함께 민관합동 반복 훈련을 통한 완벽한 현장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한 군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둘째, 중부권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구축 및 대기업과의 농산물 공급 MOU 확대 등 정부의 농업 6차산업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농식품 산업구조 개선으로 고품격 농축산 도시로 만들겠다.

셋째,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등 과감한 투자로 지역 상권 회복과 수도권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넷째, 2020년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목표로 사비마을 이주단지 착공과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지역 관광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다섯째, 희망나눔 복지재단 설립과 건강지원센터 등을 신축하여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백제문화단지 롯데 놀이공원 유치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해 부여를 경쟁력 있는 성장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등 군민을 위한 뜨거운 가슴과 미래를 여는 확실한 실천으로 민선 6기 동안 부여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 그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부여군은 농업인구가 약 40%에 육박하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다. 전국 생산량 1, 2위를 차지하는 농산물이 여러 개 있을 정도로 부여의 주력산업은 바로 농업.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부여가 가구당 농업생산액이 8,035만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진정한 농업도시임을 증명했다.

이제 저는 우리 부여를 전국 제1의 선진 친환경 농업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우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친환경 광역 유통센터를 만들어 우리 부여를 중부권 농산물 유통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

또한, 민선 5기 군수로 재직하면서 추진해 왔던 굿뜨래 제2창업을 더욱 발전시켜 1차 산업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농업을 유통, 가공, 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특히, 단순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서 탈피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망 확충, 농산물 수출국 다변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20년 미래 비전을 그려본다면?

부여는 그동안 농업과 관광의 양대 축으로 발전해온 지역이다. 농업은 굿뜨래 2차업으로 대변되는 6차 산업화로 관광은 백마강을 활용한 수상관광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 롯데, 금강 등 국내 굴지의 기업유치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트림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농업 6차 산업화 추진방안과 연계하여 전략산업 농업을 단순 가공을 넘어 친환경, 유통혁신, 수출확대 등으로 부여 농업의 제2도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보급에도 나서 부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담보해 내겠다.

관광산업은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분기점으로 기존 관광객 585만, 롯데 아울렛 신규 쇼핑객 300만을 더해 2020년을 목표로 부여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롯데 복합테마존에 중부권 최대의 테마파크를 유치하겠으며, 부여~평택 고속도로 조기 착공, 남공주 KTX 연계망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망 연장 계획 반영 등 새정부 대선공약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관광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2020년 인구 8만 자족도시 건설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100% 희망도시 부여군을 만들어 가겠다.

▲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지난 민선 5기 4년 동안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군정목표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신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새로 시작되는 민선 6기에도 8만 군민의 꿈을 모아 부여가 충남의 외곽이 아닌 충남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 젊고 역동적인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고단한 군민의 삶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약속이 희망이 되는 행복한 부여를 건설하겠다.

군민여러분! 저와 함께 군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부여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